

가톨릭중앙의료원

당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목자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



2월 1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모든 이들에게 큰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선종 1주기를 맞아 김수환 추기경이 몸소 보여주었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겨본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라

가톨릭학원 초대 이사장(1994.9~1998.6)에 취임해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발전과 함께해 온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6시 12분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된 故 김수환 추기경은 가톨릭학원 초대 이사장을 역임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사랑의 목자였으며, CMC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김 추기경은 지난 1922년 대구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막내로 출생하여 1951년 사제서품을 받았으며,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되었다. 이후 이 땅의 희망 전도

사로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사회의 큰 어른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음에 받았다.

장기기증 등 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곁을 떠나면서 크나큰 선물을 남겼다. 가장 큰 선물은 ‘사랑과 나눔의 씨앗’이다.

김 추기경은 1989년 9월 ‘앞 못 보는 이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다’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각막 기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990년 1월 5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원의 신년하례식(서울팔레스호텔)에 참석해 직접 헌안서약서에 사인을 하였다. 19년이 지난 후, 김수환 추기경의 두 눈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각각 각막이식 수술을 하여 광명을 찾게 해주었다.

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아낌없는 사랑 실천’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서약자는 예년 평균의 열 배에 가까운 31,705명으로 집계됐다. 1989년부터 2008년까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등록한 누적 서약자 수(뇌사 시 장기기증, 각막기증, 조직기증)가 33,432명임을 감안할 때, 본부가 20년에 걸쳐 이룩할 수 있던 업적을 김 추기경의 각막기증을 계기로 불과 1년 만에 이룬 셈이다.

평생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다 세상을 떠난 김 추기경의 선종을 계기로 장기기증은 물론 나눔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 한층 높아졌다.

생명존중을 위한 고귀한 실천

2010년도 이념실천상 시상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실천상은 의료원의 이념 실천을 장려하고 그 노력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된 상으로서 대상 상금이 500만 원에 이를 만큼 의료원에서 부여하는 상 중에 가

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상은 교육 연구, 진료, 원목 자선, 행정 관리 등 총 네 부분으로 나눠 이뤄지며 이념실천에 공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교직원(부서)을 기관별로 추천 받아 이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010년도 이념실천상의 경우 총 13개 후보 중 3개 부서, 1개 단체, 개인 1명에게 수여되었으며 2007년도 이후 처음으로 대상 수상자가 나왔다. 오는 2011년부터는 시상 분야를 총 5개의 핵심가치 분야(생명존중과 의료선교, 환자우선의 전인치료, 윤리에 기초한 창의적인 연구, 성숙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상호신뢰와 윤리경영)로 변경 및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 여의도성모병원 간호부(교육 연구)  
2005년부터 시작된 여의도성모병원의 ‘섬김간호’는 차별화된 간호서비스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간호부 전 직원의 공모전을 통해 사명, 비전, 핵심가치를 제정하고 현재는 중장기 전략 및 목표의 3단계인 ‘섬김간호 실현’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섬김리더십 교육을 통해 성숙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본상 - 서울성모병원 간호 1팀(진료)

서울성모병원 간호 1팀은 영성간호 문화 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를 위해 간호부 전 부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Spiritual Care Leadership Program을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모금을 통해 에이즈 예방협회에 성금을 기부하기도 하는 등 타 부서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본상 - 의정부성모병원 사랑봉사단(원목 자선)

의정부성모병원 사랑봉사단은 재활의학팀, 핵의학팀, 병리팀, 방사선종양학팀의 연합 단체로서 기관 이념의 실천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밀착된 활동을 강화하고 부서별 이념실천 활동을 펼치기 위한 봉사단체이다. 2008년부터 그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봉사활동과 자선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본상 - 대전성모병원 영양팀(행정 관리)**  
대전성모병원 영양팀은 '지혜를 전하는 영양팀'이라는 기치 아래 여러 이념실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전문성, 창의성 및 성모문화를 가꾸기 위해 부서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성모문화 예절교육을 위해 자체 교안을 제작해 전 부서원이 공유하는 등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상 -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팀 이재원 물리치료사(개인)**

이재원 물리치료사는 호스피스, 성가자 선회 등에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성가복지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치료 봉사와 병원안내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서울성모병원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CMC 아이티에 해외의료지원단 파견 직할병원 의사 등 12명, 보름간 현지 의료 활동 펼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료원장 이동익 신부)이 지난 22일 천주교 NGO단체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아이티 재난 구호 성금(미화 일반불)을 보낸데 이어 30일 저녁 해외의료지원단 12명을 현지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의

료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직할병원인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의사 5명, 간호사 5명, 약사 1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된 해외의료지원단은 의사협회 및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30일 오후 4시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재난발생지인 아이티 포르토프랭스로 떠났으며 약 12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의료지원단은 주로 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지진으로 인해 외상을 입은 현지 주민들의 외과적 처치와 긴급 수술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그밖에도 환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염성 질환 및 감염 질환을 관리하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해외의료지원단장 김성근 교수(성바오로병원 외과)는 "여진과 전염병 등 아직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인들을 돕기 위해 용기를 냈다. 작은 도움이지만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의료지원단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해외의료지원단 12명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행정요원 및 언론인이 함께 참여해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을 펼친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 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를 비롯해 정수교 기획조정실장, 노태호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 보직자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천주교 NGO단체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아이티 재난 구호 성금 미화 일반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감사의 뜻으로 의료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 천주교의 공식적인 해외 원조 및 복지 지원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 통해 현지에서 필요한 식료품 등

구호 물품 구입 및 현지 재건에 사용될 계획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는 "아이티에서는 현재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전 인류는 하나라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번 성금이 실의에 빠진 아이티 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연구 중심 병원' 키포프 행사**  
서울성모 면역 질환 융합 연구 사업단, 향후 추진 방향 논의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09년 선도형 연구 중심 병원'에 선정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면역 질환 융합 연구 사업단은 사업 과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TFT 키포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의료원장 이동익 신부와 병원장 홍영선 교수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양철우 면역 질환 융합 연구 사업단장(장기이식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본 사업 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는 "서울성모병원이 선도형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선정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우며 뛰어난 연구성과를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

으며, 서울성모병원장 홍영선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개원과 더불어 선도형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앞으로 병원의 앞날을 밝게 하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되며 연구중심병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업단장 양철우 교수는 “키오프 미팅은 선도형 연구 중심 병원 사업단의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국가로부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구병원으로 육성하라는 큰 숙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기존의 임상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의 의식전환이 이 사업단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면역 질환 융합 연구 사업단(Convergent Research Consortium for Immunologic Disease CRCID)’은 모든 면역 관련 질환에 적용 및 응용 가능한 치료 기술과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매년 45억씩 5년간 총 225억의 연구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업 과제를 통해 이식 면역 분야에서 체도 이식, 고행 장기 이식, 각막 이식, 골수 이식이, 자가 면역 질환 분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다발성 경화증 등 총 12개 세부 과제로 나뉘어 다각적인 면역질환 치료 및 면역 질환의 예후 판정 기술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 환자 유치 총력 기울여**

미국 현지 LA사무소 개소식 열고 본격 가동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 교수)이 최근 미국 LA 코리아타운 월셔가에 오픈한 미주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 5일 월셔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개

소식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의 신부와 손호영 의무원장, 홍영선 서울성모병원장, 노태호 대외협력부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현지 동문, 김재수 LA 총영사, 조재길 시장, 미셀박 위원, 김춘식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성모병원 미주 사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서울성모병원은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외 환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원장 이동의 신부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은 이날 개소식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성모병원 미주사무소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 서울 생방송 인터뷰와 라디오 증상에 출연했으며, 교우 초청 세미나를 열고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암을 예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마련해 현지 교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LA 사무소에서는 미국 전역에 고루 분포된 교민들은 물론 현지인 누구나 파견 의료진 및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검진을 비롯한 서울성모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안내받고 최대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미주사무소를 방문한 고객들은 의료진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형 진료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국내 방문을 위한 항공권과 숙박권 예약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되며, 국내 진료 후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한국에 있는 해당 의료진과 수시로 면담하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LA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뉴욕에도 사무소를 열고 해외 환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성모, 다학제 협진으로 치료효과·환자만족도 높여**

가톨릭암병원 림프종 다학제 협동진료

1주년 기념식 개최

“우측 안구의 돌출로 인해 내원한 환자로 조직 검사 및 CT와 PET-CT로 병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좌측신장의 신우에 병소가 의심됩니다.”

서울성모병원 가톨릭암병원 회의실. 함께 모인 병리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혈액내과, 안과, 림프종전문간호사 등 10여 명의 BMT센터 림프종 다학제 협동진료팀이 환자의 치료에 대해 하나 둘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곧 이어 활발한 토론과 함께 치료방법의 가닥이 잡힌다. 의료진은 림프종이 부위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해부학적 위치가 영상학적 판단이 어려워 비뇨기과적 수술로 조직학적 확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후 환자와 보호자가 참석하고 모든 임상 자료와 치료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환자는 지적수준이 높고 눈 림프종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아 눈 림프종은 방사선 치료만으로 간단히 완치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수술적 방법에 의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권고에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협진팀 교수들의 상세한 설명과 설득으로 비뇨기과 수술을 받았다. 조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눈과 같은 조직 유형의 림프종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고, 환자는 항암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 만약 눈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하고 국소적 치료인 방사선 치료를 하였을 경우 병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이처럼 다학제 협진이란 여러 진료과목 전문의들이 한 환자의 사례를 함께 모여 토론하고 최상의 치료법을 찾아나가는 진료방식을 의미한다.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암병원을 비롯한 여러 진료과에 다학제 협진시스템을 도

입하여 치료효과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암 치료에서 각종 암 전문의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있어 여러 분야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적 치료법을 찾아 적용하는 '전인적인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암병원 이외에도 심혈관센터와 뇌종양센터, 뇌졸중센터 등 각 진료과들은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혈관센터는 관상동맥질환-중재시술팀, 심장영상진단팀, 부정맥팀, 심부전 및 심장이식팀, 심장수술 및 심장이식팀 등 5개 팀을 구성, 심장외과, 심장소아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재활의학과와 전문 의료진들의 긴밀한 협진 체계로 효과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뇌종양센터는 신경외과, 신경종양과,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영상의학과, 신경병리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로 구성된 포괄적 다학제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뇌졸중센터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료센터 등이 모두 협력하여 뇌졸중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 응급의학센터의 경우 뇌졸중만을 위한 구역이 따로 정해져있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며 진료를 제공한다. 뇌졸중의 특성상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가톨릭암병원 BMT 센터 림프종 다학제 협동진료팀은 지난 14일 다학제 협동진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 여의도성모병원

### 국회 협력병원 협약 체결 및 문정일 병원장·박해관 진료부원장 국회 공로장 수상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문정일 교수)은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 30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국회 사무처와 국회 협력병원 협약 체결식을 실시했다.

문정일 병원장을 비롯하여 박해관 진료부원장, 윤성호 행정부원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주요 인사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협약식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과 국회 사무처간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동안 여의도성모병원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며 국회와 인접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지난 2009년 국회와 관련한 약 100회의 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상호협조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유하여 더욱 발전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불시에 일어나는 응급진료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정일 병원장은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양질의 진료로 보다 빠른 업무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또한 본 협약이 본원의 훌륭한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을 신뢰받은 의미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7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민을 대표하여 매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은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단체들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취임한 문정일 병원장은 취임 후 지역 기관장 및 지역 유관단체장들을 만나며 여의도성모병원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설파해 왔고, 또한 지역 내 인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여의도성모병원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신뢰를 쌓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며 여의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같은날 문정일 병원장과 박해관 진료부원장이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공로장을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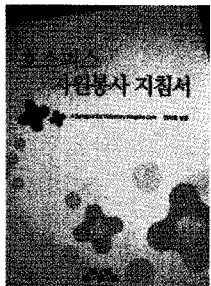
수여식은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윤철 국회 의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공로장 수여 및 환담이 이어졌다.

이 날 공로장은 그동안 여의도성모병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위해 기울인 관심과 노력을 치하하고 더불어 국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응급진료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온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에서 마련되었다.

문정일 병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함께 노력해 온 전 교직원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나누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종양내과 한치화 교수, 마뿔암재단과 함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침서’ 발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및 말기암 환우의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침서’(마뿔암재단, 264쪽, 비매품)가 발간되었다.

암 환우를 위한 진료비 지원과 암 연구 활동, 호스피스 지원과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마뿔암재단의 이사로 활동 중인 여의도성모병원 종양내과 한치화 교수는 마뿔암재단과 함께 그동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엮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크게 3장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생명윤리와 호스피스, 호스피스의 정의와 역사, 호스피스 봉사 등 ‘호스피스의 기본 교육 과목’과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임종 환자 관리, 슬픔과 사별 가족관리 등 ‘중급 교육 과목’ 그리고 ‘부록’으로 암에 대한 이해와 최신 치료 동향, 암의 조기진단·영양·예방 등 암에 대한 전

반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교육을 위한 지침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치화 교수는 “임종을 기다리는 시기는 출생을 기다릴 때와 같이 대단히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한다.”고 말하며 “이 책을 통해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사랑의 간호와 전인적 보살핌을 통해 환자가 거룩하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9년 12월 마뿔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암환우의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환우 및 보호자의 영성을 위한 상담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사랑실은 건강천사’와 함께한 무료 이동진료**



여의도성모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3월 24일 성북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이동진료활동을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금번 이동진료는 공단에서는 진료장비가 탑재된 검진차량을 제공하였고, 여의도성모병원에서는 4개의 임상과(내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를 주축으로 한 진료팀을 구성하였고,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구내 여러 기관을 연계하여 진료장소 협조 및 진료 인원을 선정하며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이동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봉사단, 여의도성모병원 이동진료

단, 성북장애인복지관 실무자 및 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약 42명의 이동진료팀이 총311명의 지역주민들을 진료하였으며, 진료 중 수술이 시급하나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사회사업상담을 시행하여 자선특화사업인 ‘성모사랑나눔’으로 연계되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 다수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주민들은 이동진료팀의 전문화되고 친절한 진료에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된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은 CMC이념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이동진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총21회 이동진료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속하고 전문화된 진료로 환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축성식 실시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6일 문정일 병원장, 박해관 진료부원장, 윤성호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단장 한 응급의료센터 축성식을 가졌다.

지난 12월말부터 2월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의 환우가 보다 신속하고 전문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선 심폐소생실을 출입구와 가장 가까



은 곳에 배치하여 응급처치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였으며, 환우의 예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환자분류실(Triage)을 출입구와 인접하게 하였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우 등 격리가 필요한 환우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진료 공간을 외상진료구역, 급성진료구역, 중증진료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다발성 외상 환우 혹은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패혈증 등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우 등 환우의 상태에 따른 다중감시 장치와 집중 치료 장비가 마련된 공간에서 진료와 처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아환우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놓치지 않았다. 소아환우와 성인환우를 한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아환우의 정신적 충격이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독립된 소아 진료 구역을 신설하여 소아환우가 정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보호자 대기실을 더욱 넓고 쾌적하게 단장하였고, 환우와 보호자를 위해 응급센터 내 모든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다. 지난해부터 운영되어 온 '119구급대 휴게실'을 재정비하여 응급구조대원들이 응급환자 후송 후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통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승필 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새로운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우들이 최선의 진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응급의료기관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여 응급의료센터 내 환자 분류소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재난본부 구급차량에 장착된 원격영상 의료지도시스템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체정보

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원격화상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응급환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인술'

정서적 영적 돌봄 통해 환우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적 환경조성

여의도성모병원 원목실(원목실장 최정진 베네딕도 신부)은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해 미사전례와 성사집행 등 다양한 영적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7시 50분, 방송기도를 통해 그날의 복음 말씀을 읽고 교직원들이 돌아가며 기도를 봉헌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수술방 기도를 하여 환자들이 불안함을 떨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원목신부 및 수녀들이 수시로 병실을 방문하여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가톨릭 신자 중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봉성체 및 고백성사, 병자성사를 드리고 있다. 병실 방문 중 가톨릭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환자교리교사단이 1대1 개인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적돌봄 활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

### 의정부성모병원

㈜우리방송 '건강과 TV, 전문의에게 듣는다' TV건강강좌 프로그램 개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김영훈 교수)은 지난 3월 3일부터 의정부시에 위치한 ㈜우리방송 스튜디오에서



TV건강강좌 프로그램 '건강과 TV, 전문의에게 듣는다' 촬영에 들어갔다.

'건강과 TV, 전문의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은 경기지역 Cable TV방송국인 ㈜우리방송과 공동으로 총 15회 분량으로 제작되며 본원의 교수진 15명이 출연하여 뇌졸중, 무릎관절염, 당뇨병, 백내장 등 15개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전문 정보와 치료법을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7월 14일까지 매주 1회씩 녹화하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총 14개 시군에 3월 3일부터 2010년 말까지 회당 7회씩 방영될 예정이다. 첫회는 신경외과 허필우 교수의 '뇌졸중'에 대한 전문 정보와 환자들이 뇌졸중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을 주제로 3월 15일 의정부 CH4번에서 첫 방영되었다.

병원장 김영훈 교수는 "(주)우리방송과의 TV건강강좌 개설은 지역홍보의 본격적인 첫 발이 될 것이며,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환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역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최고의 친절을 위한 CS Leader 발대식 시행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3월 4일, 2층 임

상강의실에서 CS Leader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CS Leader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CS Leader 대표가 병원장과 교직원 앞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선서하면서 최고로 친절환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전 교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지장을 짝어 만든 “우리들의 약속 - 아름다운 미소 만들기” 액자를 병원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각 부서에서 선발된 66명의 CS Leader 들은 앞으로 3월 10일, 17일, 24일 3일간의 CS Leader 양성교육을 수료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각 부서에서 시행되는 고객만족활동을 지원하고 CS조화 진행 및 현장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뇌졸중 환자의 획기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내 제일을 꿈꾸다**

2009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급성뇌졸중 부문 1등급 뇌졸중센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 한 명이 내원했다. 환자는 거동이 불편했고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환자 분류법에 따라 30분 내에 이 환자를 뇌졸중으로 분류, 미리 구축해 놓은 치료 지침(Critical Pathway)에 따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환자는 24시간 대기 중인 뇌졸중 의료전담팀에게 인계되었고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될 수 있었다.

시간을 다투는 환자의 생과 사, 체계적 시스템 구축으로 지켜내

뇌졸중은 시간의 질환이다. 사람의 뇌혈관이 막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선 1분 1초에 따라 환자의 생(生)과 사(死)가 엇갈린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장애로 고통 받게 된다.

뇌졸중센터는 환자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일 먼저 응급의료센터 내의 뇌졸중 환자 분류법과 뇌졸중환자 치료 지침(Critical Pathway)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뇌졸중으로 내원하는 환자를 30분 이내에 분류하고 뇌혈관이 막힌 지 3시간, 6시간, 6시간 이후로 세분화하여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중환자간호팀 등 뇌졸중센터의 모든 구성원들은 언제 내원할지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뇌졸중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 성과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 동안 의정부성모병원 뇌졸중센터를 방문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 651명의 치료 결과를 보면, 대뇌 동맥 등 주요 뇌혈관이 막힌 환자 53명의 사망률이 0%로 나타났다. 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70~80%가 사망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뇌졸중 진료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진료와 연구, 대국민 서비스까지 환자들의 신뢰받는 센터로 발전**

진료뿐 아니라 병원 신관에 위치한 임상 의학연구소에서는 뇌졸중 치료를 위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뇌졸중센터는 13년의 역사와 진료 실

적, 경기 북부 지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넘어 국내 제일의 센터를 꿈꾸고 있다. 지금보다 더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19 응급구조대나 1차 병원들과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뇌졸중 치료 이후 장기 재활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위한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질병 상담과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한 환자,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다.

허필우 뇌졸중센터 소장(신경외과)은 “의정부성모병원 뇌졸중센터의 모든 의료진은 경기 북부 지역의 주민 100만 여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지니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내 제일의 센터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의료진부터 이송 요원에 이르는 뇌졸중센터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실력과 사랑을 겸비한 감동의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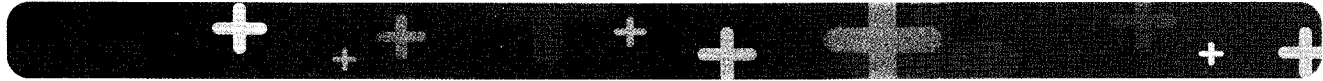
**환자에게 새 삶을 선사합니다**

생명존중사업 통해 적극적인 자선진료 나선 의정부성모병원



“하느님이 제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7세 때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아 평생을 고요의 세상에서 살아온 정옥녀(여, 53세) 씨가 지난 4월 28일, 인공와우수술이 끝난 후 밝힌 첫 소감이었다. 수술을 한다면 청력이 회복될 수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번 망설이던 정 씨는



청각장애 재 진단을 받기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했다가 '2010년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청, 수술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의학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포기했던 이들을 돕기 위해 '2010년 생명존중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고, 기존에 병원으로 의뢰되었던 환자를 지원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도움을 주는 능동적인 자선진료로의 전환을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병원 내에 생명존중위원회(위원장 원목실장 이해일 신부)를 구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환자들을 도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 무릎인공관절수술과 인공와우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 각각 30여 명에게 새 삶을 찾아주기로 결정했다.

무릎인공관절수술은 무릎관절이 파괴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인공관절을 이식,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수술이며 인공와우수술은 고도 난청으로 청각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음감을 제공하는 이식기를 달팽이관 내에 삽입하는 수술이다. 무릎인공관절수술은 정형외과 인용 교수가 집도하고 인공와우수술은 이비인후과 전범조 교수가 집도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을 지난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고, 정 씨는 그 첫 번째 수혜자였다. 무릎 통증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이해자(여, 67세) 씨 또한 생명존중사업이 도운 환자였다. 이 씨는 5년 전부터 관절 이상으로 고생했으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물리치료와 약물 복용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었으나 의정부시 가능 2동 성당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아 인공관절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이 씨는 지난 5월 6일 수술을 마친 후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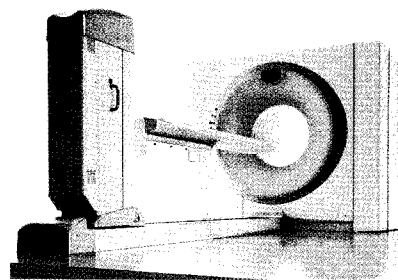
처한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병문안 온 지인들이 보조해 준 금액인 40만 원을 병원장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정 씨와 이 씨에서 그치지 않고 오는 11월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고른 혜택을 위해 지역 케이블 방송 및 지역 신문, 의정부교구, 사회복지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영훈 병원장은 "현재 추가적인 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31일과 6월 3일, 두 번째 환자들에 대한 수술이 진행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사업의 전망을 밝혔다.

### 부천성모병원

#### 조기암 진단의 최신검사 PET/CT 2,000례 돌파



암과의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이다.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기술과 함께 몸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암을 추적 진단하는 PET/CT 검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신체 일부만을 따로 찍는 다른 검사보다 전이된 암의 위치까지 한꺼번에 찾아내는데 탁월한 PET/CT는 암의 미세한 변화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진단을 비롯한

치료효과 평가 및 암 치료제 같은 신약 개발에까지 이용되고 있다.

PET/CT로 숨겨진 암까지 찾는 원리는 이렇다. 환자에게 양전자를 방출하는 포도당과 유사한 약물을 투여한다. 암이 있을 경우 포도당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감마선을 내뿜게 된다. CT로 촬영한 신체 내부 영상에 감마선 방출 정보가 합쳐져 여러 종류의 암을 정밀하게 찾아내게 된다. 때문에 PET/CT가 암 추적의 신기원으로 불리며 몸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암 조기 진단 및 종양의 정확한 논스톱 진단 및 치료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형민 교수) 핵의학과는 현 PET/CT 시장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최신행 Siemens PET/CT Biograph 40을 가동 중이며, 2010년 4월 13일 PET/CT 검사 2,000례를 돌파했다.

### 건강하게 자라 준 자미야, 고마워!



작년 4월 29일, 29주 만에 680g으로 출생한 자미.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의 자녀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100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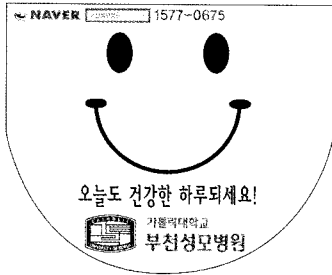
을 치료받고 퇴원한 아이가 어느덧 건강하게 자라 모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간다. 건강보험이 없어 5천 여 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근심에 차 있을 때 병원자선기금, 성가자선회, 외부후원기관의 지원과 직원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접한 교직원들의 후원금 모금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자미 어머니 Bui Thi Huyen Trang 씨(25)는 귀향 전 병원을 방문해 서툰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시흥시에 건강 캠페인 실시해



부천성모병원은 시흥시민들의 활기찬 하루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앞 주차 통에 광고 문구대신 활짝 웃는 미소와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아침과 저녁 출·퇴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였다.

부천시를 비롯한 인근 시흥시 주민들에게 건강파트너 부천성모병원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실시한 이번 광고 캠페인은 올해 4월부터 2년간 진행된다.

아파트 주민은 “다른 광고는 환경공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차 통은 출근할 때 마다 미소를 짓게 해 부천성모병원의 이미지가 밝고 건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온 30여 년 세월... 부천성모 성가자선회



1984년. 매일 아침마다 수술실 앞에서 부러운 눈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는 딸을 둔 미화원 직원이었다. 인생의 꽃봉오리를 피울 20살 나이의 딸아가 수술비가 없어 홀로 집에서 투병

하고 있다는 사연을 접한 교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마련해 사회사업팀을 통한 치료의 길을 만들었고, 이를 시작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 도움을 주는 ‘부천성모 성가자선회’가 탄생하였다.

27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가자선회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2009년까지의 기부금이 총 12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연간 예산도 1억 원 이상 집행되는 규모로 발전했다. 사업 분야도 장학금, 성가사랑나눔(저소득 가정 주부식 나눔 사업), 의로비, 생계비, 재활보조비, 장제비 지원으로 다원화 되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중·고·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270명에게 약 3억 2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2010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부천시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 특화사업 협약(MOU)을 맺고 부천시 관내의 각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은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 등 총 27명에게 4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성가사랑나눔’은 3,543가구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쌀과 밀반찬을 전했다. 매년 부천성모 성가자선회 회원인 병원 교직원들이 퇴근 후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와 먹거리를 전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돌아오는 3월 30일에도 부활대축일을 맞아 부천시 시흥시 소재 31개 본당에 쌀 10KG, 620포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치료 후 생활로 복귀할 시점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의로비, 생계비, 재활보조비, 장제비 등으로 현재까지 총 11억 원을 후원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

길 줄 아는 부천성모인들. 팀 내에 경사스러운 일로 상금이 생기면 주저 없이 기부하고, 자발적으로 자선회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생활 속의 나눔 문화 형성에 기여한 그들의 삶에 더 큰 선물이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문의 : 사회사업팀 032-340-23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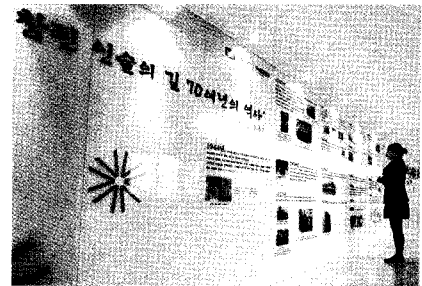
김형민 병원장, YTN 사이언스TV 시청자위원 위원장으로 위촉

김형민 병원장은 3월 18일 YTN 사이언스TV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앞으로 2012년 3월까지 2년 동안 방송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YTN 사이언스TV’는 뉴스채널 YTN과 과학기술부가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초 24시간 과학 전문 방송이다.

성바로병원

70여년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성바로병원, 역사·이념·의료성과·CMC네트워크 담은 이미지월 설치



성바로병원(병원장 최남용)은 최근 70여년의 역사와 의료성과 등을 담은 이미지월을 설치하여 내원 고객들과 교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성바로병원의 역사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 전문센터소개, 의료성과, CMC 네트워크 등을 담은 컨텐츠로 꾸며진 이미지월은 유동인구가 많은 본·별관 2층 연결다리과 본관 1층에 설치되어 내원 고객들과 교직원들의 이목을 집



중시키고 있다. 특히 1944년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에 의해 제기동 시약소에서 시작된 의료활동에서부터 1978년 국내최초 심장전문센터인 한국순환기센터 개소, 2008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직할병원으로 편입, 2009년 의료기관평가 전국 최우수 병원 선정에 이르기까지 70여 년간의 성바로병원 발전상을 담은 섹션은 오랜 역사와 설립이념 등을 흑백 사진들과 함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을 김수환 추기경의 사진과 함께 마련한 섹션은 생명을 존중하는 가톨릭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순환기센터와 관절센터 등 성바로병원의 대표센터를 소개하는 전문센터 소개와 의료성과, CMC산하 8개 병원 소개를 담은 섹션은 작은 시약소에서 시작해 서울동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병원으로 자리 잡은 성바로병원의 발전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외래를 찾은 고객 주순희씨는 “10여 년 동안 성바로병원을 다녔지만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줄은 이미지월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성바로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오랜 역사와 가톨릭이념을 가진 병원이라는 사실에 한층 믿음이 간다” 말했다.

## 인천성모병원

### 2010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마케팅 대학(종합)병원 복강경센터 부문 대상 수상

흉터 걱정 없는 단일공법 복강경 수술의 “원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2010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마케팅 대상’에서 대학(종합)병원 ‘복강경센터 부문’에 선정돼 상장과 상패를 수상했다.

올해 3회째로 iMBC, 동아닷컴, 일간스



포츠 언론3사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중한의학의료교류협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상은 국내 의료를 선도하고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한 병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전문가조사, 네티즌조사, 병원모니터링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인천성모병원은 1955년 6월 설립되어 인천 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최상의 첨단 진료’를 미션으로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용욱 교수는 2009년 2월 세계 최초 흉터없는 차세대 수술법으로 부인암 수술을 성공하였고 전자궁적출술, 자궁근종적출술, 난소종양절제술, 자궁내막증 수술, 자궁외 임신의 난관절제술 등 대부분의 부인과 수술을 단일공법 복강경 수술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370여 건의 단일공법 복강경수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김용욱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인명정보기관(ABI)으로부터 ‘21세기 위대한 지성’과 ‘2010년 의학 의료분야 올해의 인물’에 동시에 선정됐다. 또한 영국국제인명센터(IBC)가 선정하는 21세기 뛰어난 과학자 2,000명에 포함됐다.

인천성모병원은 국내 최초로 꿈의 방사선 암치료기라 불리는 토모테라피를 도입하고 무혈·무통 암치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평가에서

인천,부천에서는 유일하게 간암,위암,대장암,심장혈관수술,엉덩이관절수술 5대 고위험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료에 대한 병원별 평가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기록하여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인천성모병원은 풍부한 수술경험과 정확한 치료, 짧은 입원 기간 등 반세기의 의료전통을 이어 온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첨단의료와 따뜻한 마음으로 전인치료를 실현하고 있다.

### 고객만족을 위한 새로운 변화

#### 제2주차장 개설, 외래 진료시간 늘려

올해로 개원 55주년을 맞는 인천성모병원은 고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곳곳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첫번째 노력은 바로 주차장 확보이다. 인천성모병원은 그 동안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왔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17,000㎡를 확보하고 주차장으로 탈바꿈하여 지난 2월 25일 제2주차장을 개설하여 오픈하였다

이로써 인천성모병원은 주차빌딩과 제2주차장 동시에 4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그 동안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왔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 노력은 아침 일찍 진료를 보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오전 진료 시작 시간을 9시에서 8시 30분으로 앞당겼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의 외래 진료시간(09:00~17:00)보다 30분 늘어났고(08:30~17:00), 이를 통해 진료편의를 통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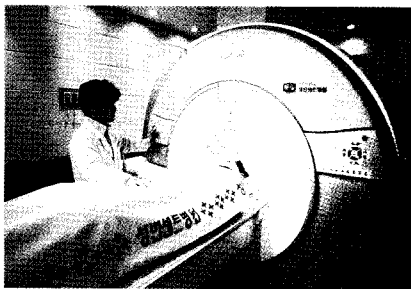
오전 8시 30분에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진료과는 다음과 같다

간·담도센터,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흉부외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이처럼 인천성모병원은 개원 55주년을 맞아 고객만족을 가장 큰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고객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빈센트병원**

**최첨단 3.0T MRI 장비 도입**



성빈센트병원(병원장 차영미 수녀)은 최근 MRI 장비 중 가장 최신형 장비인 '3.0T 마그네툼 베리오'를 도입,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도입한 MRI는 기존 장비에 비해 내부공간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씨름 선수들처럼 몸이 큰 환자나 폐쇄공포증 환자, 소아환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통증 등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척추, 무릎환자들도 편안하게 다리를 구부리거나 측면으로 누워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이 큰 특징이다. 기존 MRI는 검사 부위별로 부분 촬영을 했던데 비해 이 장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 촬영이 가능해져서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환자들의 편리함도 크게 증가했다. 또 복부, 유방검사 등과 같은 넓은 부위의 검사나 심장 및 뇌·사지혈관 질환 진단, 각종 암의 조기 진단과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영미 병원장은 "최신 장비의 도입으로 기존에 검사를 받는데 불편을 겪었던 환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해졌고 효율적인 검사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빈센트 동산에 봄 향기 가득"**

빈센트갤러리 오픈기념 '박수길 사진작가 초대 전시회' 개최



성빈센트병원 1층 로비 갤러리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친 후 '빈센트 갤러리'로 명명하고 박수길 사진작가 초대 전시회를 열었다. '빈센트 갤러리'는 병원의 주보성인인 빈센트 성인의 정신에 따라 환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갤러리 오픈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박수길 사진작가의 꽃과 자연 등을 주제로 한 작품 22점이 오는 5월 31일까지 전시되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한 한 입원 환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는 병원에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많은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차영미 병원장은 "앞으로도 유명작가 초청 전시회를 통해 갤러리의 질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길 작가는 바쁜 일상 속에 무

심코 지나치기 쉬운 아름다움을 찾아 앵글에 담아내어 국내외 공모전에서 90여 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진작가이다.

**성빈센트병원-화성시 보건소, 암 환자 의료협력 체결**



호스피스 완화의료팀과 화성시 보건소는 25일 화성시 보건소에서 지역 암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상호 의료협력력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암 환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진료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암환자들의 의료 연계 서비스와 보건소가 가정간호 팀원들의 전문적인 교육 등이다. 아나스타시아 수녀(호스피스팀장)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의료 및 복지지원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협진 효율을 향상시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력 의의를 밝혔다.

**'2010 대한민국브랜드대전 & 경기도 프랜차이즈박람회' 참여 의료봉사 활동 펼쳐**

성빈센트병원은 4월 8일부터 4일간 수원 월드컵경기장 상설전시장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브랜드대전 & 경기도 프랜차이즈박람회'에 참가하여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경인일보 주최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및 유관 관련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기도 각 지자체의 시정, 문화 홍보 등을 위해 총 230여 개 부스가 운영되어 4일 동안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번 행사에서 20여 명의 간호사와 영양사, 행정인력, 수도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파견하여 골밀도검사와 체성분검사 등 건강검진과 건강 및 영양상담을 실시했다.

가톨릭대학교 조혈모세포센터와 함께 조직·장기 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 운동도 펼쳐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기념품과 병원의 각 센터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홍보 활동도 효과적으로 펼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성빈센트병원은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하여 이미지를 향상시켰으며 행사에 함께 참여한 지역 사회 여러 기관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 “힘 모아 함께 걸은 22km”

교직원 도보 순례, 오는 5월까지 총 11차로 진행



성빈센트병원은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

하는 도보 순례를 계획하고 지난 4월 10일 첫 출발을 시작했다.

이번 도보 순례는 수원교구 성지들을 함께 걸으며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교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양지 성당에서 출발하여 은이성지와 삼덕고개를 지나 미리내성지까지 걷는 약 22km의 코스로 매주 100여 명이 10개조로 나뉘어 5월까지 총 11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도보 순례를 마친 한 교직원은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좀 되었지만 막상 모든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 서로 도우며 걷다보니 크게 힘든 줄 모르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도보 순례 코스인 은이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세례성사와 첫 영성체를 받은 곳이며, 미리내성지는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있는 성지이다.

### 대전성모병원

“간이식” 아직도 서울로 가십니까?



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 간이식팀은 지난 2월 9일 첫 간이식술 성공 후 4월 13일 두번째 간이식술 시행 등 활발한 임상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간이식술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팀뿐만 아니라 마취과,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여러 과들의 역량이 응축된 수술로 현대의학의 꽃이며 이식수술 중 가장 어려운 수술로 알려져 있다.

간이식팀장인 외과 김세준 교수는 “현

재 대전 충청권의 많은 환자들이 간이식을 위해 서울로 많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이 경우 서울에서 성공적인 간이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료를 위해 서울에 가야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 손실 및 치료의 지연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김세준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간이식팀에서 100례 이상의 간이식술을 경험했으며, 수술 후 관리에도 충분한 노하우를 지닌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대전성모병원의 간이식술 성공을 계기로 대전성모병원에서 수술 뿐 만 아니라 간이식 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환자들의 부담 및 위험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전·충청권 최초 성공 심방세동(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대전성모병원 심혈관센터(소장 순환기내과 허성호)는 지난 2월 24일 여의도성모병원 이만영 교수, 성바오로병원 장성원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신우승 교수와 함께 만성 심방세동을 앓고 있던 서모씨(37세, 남자)를 대전·충청지역 최초 3차원 입체 영상을 이용한 심방세동 전극도자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심방세동이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심장을 뛰게 해주는 심방 내의 수많은 곳에서 무질서한 전기 자극이 생겨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는 질환이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가운데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형으로 뇌졸중과 심부전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심장병,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수면, 음주 등에 의해 유발되며 불규칙적인 맥박 외에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전선과 같은 가느다란 기구를 심장 근육에 밀어 넣고 이상 맥박(부정맥)을 보이는 부위에 고주파 열에너지를 투사해 부정맥 현상을 바로 잡는 난이도가 높은(성공율 70%) 치료법이다. 시술시간은 3~5시간 정도이며, 가슴을 여는 수술(개흉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기간도 2~3일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대중적인 약물치료에 의존해야 했던 질환이었으나 치료효과도 약하고 장기간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극도자술을 이용한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전·충청지역에서 최초로 대전성모병원 심혈관센터에서 3차원 입체 영상을 이용한 심방세동 전극도자술에 성공하였다. 이후 심혈관센터는 월 1회 이상 시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태국 치과 의사 24명 임플란트 연수, 해외 홍보 효과 기대**



대전성모병원 치과(과장 김진 교수)는 3월 19일 오후 1시 30분, 성모홀에서 태국 치과 의사 24명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수술시 사용되는 동종골 (Clinical review of the human bone graft at the dental in the Korea)'에

관한 연수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태국 치과장비 업체인 Dentapex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태국 치과의사들의 기술적 교육과 새로운 테크닉 습득과, 특히 국내 동종골 연구의 선두 주자인 본원 치과 김진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국 치과의사들이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부족한 골 결손부에 사용되는 이식 골과 임플란트 교육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국내 동종골 연구와 임플란트 학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치과의사들은 김 교수가 연구하고 사용하는 다양한 국내 조직은행의 동종골을 사용한 상악동 임플란트 거상 수술 술식을 교육 받았으며, 다양한 재료와 기술 등의 학술 정보를 접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태국 치과의사인 나릿 리퐁은 "한국의 치과에서 사용 중인 동종골 이식은 태국의 치과의사들에겐 아직 익숙치 않은 치료법으로 이번 기회에 선진 치과 술식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돌아가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자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성모, 간호서비스 2등급 승격**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인치료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원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진료시 간

호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한 명의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수가 적어 직접적으로 간호받는 시간이 늘어난다.(간호사 1명 대비 연평균 입원환자 2.5~2.99명 = 2등급)

**새로운 출발, 의료질 향상의 시작**



대전성모병원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상지홀에서 QI 발대식을 실시했다.

병원은 각 부서에서 활동할 QI에 대해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발대식을 가졌다. QI 발대식에는 총 46개팀이 발표했으며, 주제발표와 준비한 다양한 구호 등으로 한해 QI 활동에 대한 서전을 장식했다.

행사 후 QI팀 관계자는 "2010년 QI 발대식을 통해 질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 되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각 부서에서 선정한 주제들이 올해는 더욱 참신하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개선활동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여 2010년에도 발전하는 대전성모병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진료부의 새로운 QI 활동(CP개발 및 시스템 구축)참여로 환자들의 치료 향상이 기대되며, CQI로 지속될 경우 대전성모병원이 해당 진료 프로세스에 새로운 표준화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가톨릭의료원

### 메리놀병원

#### 개원 60주년 기념미사 봉헌



메리놀병원(병원장 김호균 교수)에서는 4월 15일 오후 5시 30분 강당에서 천주교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의 주례와 부산가톨릭의료원을 비롯한 교구기관의 14명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개원 60주년 기념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황철수 주교는 "60년을 맞이하는 메리놀병원의 다져온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통해 새롭고 발전된 60년을 향해 전진해 가기를 바란다"며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내실 있는 의료와 성령의 큰마음으로 어려운 의료 환경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하며 밝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기도하자"라고 하였다. 이어 황선출 진료부장이 지휘하는 메리놀성가대의 아름다운 축가가 울려 퍼졌고, 개원 60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메리놀병원 직원들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호균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원 60주년은 사람의 나이를 비추어 보면 금방 실감하게 되며, 우리 병원은 1950년 개원 이래 지역사회 의료의 큰 발자취를 남기며 어려운 의료 환경도 꿋꿋이 견뎌왔다."라며 "우리가 가진 차별화된 의료역량은 큰 장점이며 이밖에도 교회병원으로서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자들, 병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많은 신자분들의 힘은 우리의 자랑이자 자산이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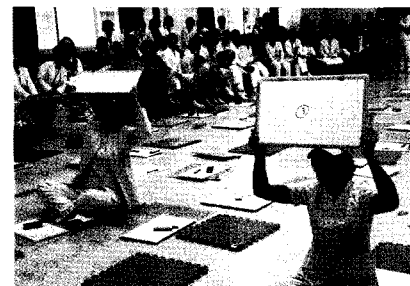
하였다. 또한 "지난 6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갈 수 있도록 전통은 지키고 높은 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중구지역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쌀가마 전달



4월 19일 오후 2시 부산 중구청 로비에서 개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지급될 '사랑의 쌀가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김호균 병원장은 김은숙 중구청장에게 60가마를 전달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0가마는 중구 노인복지관을 통해 전달하였다.

#### 도전! "환자안전, 감염관리 골든벨을 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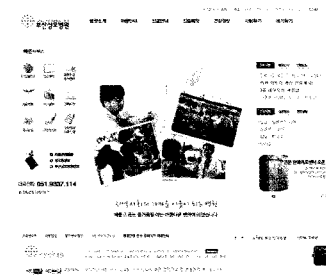
4월 21일 오후 4시 강당에서는 '도전! 환자안전, 감염관리 골든벨을 울려라'를 실시했다. 제2회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30여명의 도전자들이 참석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보인 가운데 간호부 외래 조영주 간호조무사

가 골든 벨을 울려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이번 '도전! 골든 벨'에 출제된 문제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지침과 소방체계, 감염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병원 역사와 현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특히, 총 50문제 중 35번 문제를 풀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도전자가 정답을 맞히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각 부서별 응원전 역시 치열했는데, 61병동과 간호부 외래에서 철저한 응원도구 준비와 함성으로 응원상을 받기도 했다. 손창목 QI위원장이자 진료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철저한 감염관리는 여느 질병 치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 전체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 부산성모병원

#### 웹접근성 준수 홈페이지 오픈



부산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 교수)은 지난 2월 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웹 접근성 준수 홈페이지는 장애인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시각장애인, 색각이상자, 지체장애인 등 여러 장애환경 속에서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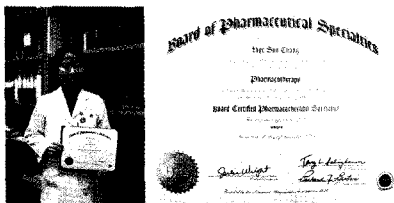
이번 웹 접근성 준수 홈페이지는 시각 장애인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색각이상자도 색상에 구애 없이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으며 흑백모니터 및 흑백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도 색상에 무관하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깜빡임으로 인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장애인을 위해 스크린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모든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셀에 제시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구성,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돋보이는 점이다.

부산성모병원은 이번 웹접근성 준수 홈페이지 오픈 이외에도 2006년부터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보 <길>에 보이스아이(지면의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에 더욱 모범이 되고 있다.

**장혜선 약사, 미국 전문약사 자격증(BPS) 취득**



부산성모병원 약제팀 장혜선 약사가 미국약사협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 APhA)가 인증하는 전문약사 자격증(Board of Pharmaceutical Specialties ; BPS)을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2004년 Oncology 분야에서 첫 합격자를 배출한 후 2005년에는 10명, 2006년에는 13명이 합격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2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어 올해까지 모두 57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미국약사협회가 1976년부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약사 인증제도인 BPS는 Oncology Pharmacy를 비롯하여 Nuclear Pharmacy, Pharmacotherapy, Psychiatric Pharmacy, Nutrition Support 총 5개 분야로 장혜선 약사는 Pharmacotherapy(약물요법)분야에 합격했다.

장 약사와 함께 2009 미국 전문약사 시험에 합격한 약사는 전국에 총 9명으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서울 지역 대형병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성모병원 장혜선 약사와 함께 메리놀병원 김정숙 약사가 자격을 취득해 부산가톨릭의료원 소속 병원들에 기쁨을 안겨줬다.

한편, BPS 시험은 연1회 시행되고 있으며 자격 취득 후에는 7년마다 Re-certification을 받아야한다. 미국 BPS는 우리나라 병원 약제 업무의 전문화를 가속화시키고 병원 약사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경우 과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국가암관리사업 모범실천 공로**



3월 19일 제3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우 과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경우 과장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외래에서 그리고 병동에서 말기 암 환우들의 완화의료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펼쳐 병원 이용객으로부터 칭찬의 글도 많이 받는 모범 의사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병원 완화의료센터 개소와 함께 전문적인 완화의료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말기 암 환우를 위한 완화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경우 과장은 이번 수상으로 생명사랑과 인간존중이라는 가톨릭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부산성모병원 직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언론문의 부산가톨릭의료원 기획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국내외 최초 미국 의학연구 윤리심 의기관(WIRB) 초창**

2010 생명·의학 연구윤리 국제학술대회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김준우 신부)이 생명·의학 연구윤리 심의에 관한 큰일을 벌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메디시티 대구, KAIRB, (재)통합의료진흥원이 후원하여 3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대구 인터블로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이한구, 손숙미), IRB관련 및 임상연구과 임상시험 관련 국내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의학연구 윤리심의를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WIRB 주요 인사 및 미 보건성 주요 인사와 함께 간담회도 개최하여 더욱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특히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WIRB 주요 인사가 움직이는 것은 처음이며 더욱이 WIRB 회장이 방문하여 직접 강의까지 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기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대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기에는 그 중요성과 강조점이 더욱 대



두된다. 또한 이 학술대회는 이미 WIRB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세계 WIRB를 거쳐간 모든 연수자들에게 알려져, 우리나라의 IRB의 성숙된 국제행사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서 개발될 신약·의약품 품목에 대한 생명·의학 연구윤리 수준을 국제화하고 연구윤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의학연구윤리 심의기관(WIRB) 회장인 스테판 로젠펠트와 데이비드 포스트 부회장, 브레들리 웨이트 국제연수총괄, 멜로디 린 미국 보건성 임상연구안전국(OHRP) 부회장 등 WIRB의 주요 인사들과 태국, 대만, 중국 등 각 나라의 IRB 관계자를 비롯해 생명·의학 연구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WIRB는 1968년에 창립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개발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미국에서 추진되는 다국적 다기관 임상시험 등의 과학성·윤리성을 검토하고 심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IRB(생명·의학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구성과는 국내외

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 FDA 품목허가 신청 시 자료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IRB관련 및 임상연구과 임상시험관련 중요한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기, 이번 학술대회는 2009년 대구지역이 첨단의료 복합단지라는 큰 과제를 획득하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착시키고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인 생명·의학 연구윤리 심의에 관련된 일이기, 학술대회의 가치 및 중요성에 더 강조점이 주어짐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의료원은 지역최초로 미 보건성 OHP/FWA에 가입했으며, 지역에서 유일하게, 세계보건기구 산하 생명·의학 연구윤리 심의 인증기구(WHO-SIDCER/FECAP)에 가입되어 이미 생명·의학 연구윤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리드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생명·의학 연구윤리 심의기구에 국내외 2명의 실사위원(신임희: 의학통계학, 김상경: 진단검사의학)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학술대회가 현재까지 이러한 중요한 상황이 올 수 있었음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신임희 교수가 2009년 보건복지부 생명·의학 연구윤리 해외 전문가 지원자로 발탁되어, WIRB 연수를 다녀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WIRB회장인 로젠펠트와 WIRB 관계자와 함께 학회 프로그램에서부터 학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물심양면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행사내용(외국연자 중심)은 WIRB 로젠펠트 회장이 전반적인 한국의 상황과 함께 WIRB와의 국제적인 연계와 관련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점이 있는 지를 강의했으며, 미 보건성의 OHRP 부회장인 멜로디 린은 미국 역사 속에서 일어난 피험자 보호 및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과 더불어

(Nuremberg, Tuskegee, 헬싱키선언, 벨몬트 리포트 등) 미 보건성의 미국 내에서 IRB가 강조되어진 상황/미국 연방법(CFR), 미 보건성의 규율과 FDA 규율의 비교, 미 보건성의 OHRP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WIRB 부회장인 포스터의 IRB Role & General Issues는 IRB의 역할, IRB의 목적은 피험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하고, IRB심의를 필요성과 더불어, 기관에 속해있는 IRB의 장단점, Central IRB의 장단점을 강의했다.

웨이트의 Initial & Continuing Review of Research의 강의는 초기(정규)심의시에 고려해야 하는 관점이 Protocol에서는 무엇을 심의해야 하고, 연구자 및 연구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을 심의해야 하며 초기심의를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초기심의에서 승인된 프로토콜에 대한 지속심의의 중요성 및 필요성, 즉 승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심의의 중요성 및 관점도 함께 강의하고(연구의 책임성, 투명성, 지속적인 피험자보호 등), 연구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의 관점, 이 관점을 ICH-GCP 가이드라인, CIOMS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설명했다.

한국연자들은 보건산업정책국장(김장립)의 우리나라 IRB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KAIRB회장(이석구교수, 삼성서울병원)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IRB 상황에 대한 연설이 있었고,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에서 IRB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오명호교수, 순천향의대) 다양한 우리나라 IRB의 소개(신희영 교수, 전남대 의대), 피험자 동의서(최현일, 샘안양병원)의 강의를 이어졌다. 의료원에서는 신임희 교수가 IRB 국제인증제도에 대한 소개, 최정윤 교수의 연구책임자(PI)의 입장 및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한 IRB위원 및 위원장으로서의 경험 및 입장(김장한 교수, 보건의료연구원



미국 의학 연구윤리 심의기관(Western IRB) 초청  
2010 생명·의학 연구윤리 국제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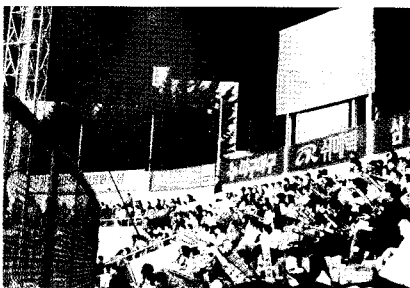
일시 4월 19일 - 19일  
장소 호텔 인터콘티넨탈 2층 대회의실



주최 한국생명윤리학회  
후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IRB위원장)을 이야기하고, 김옥주 교수(서울대 의대)의 우리나라에서 IRB의 역할 및 활약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좌장으로는 한국제약의약회 회장인 지동현 회장(Abbott Korea)과 구영모 교수(WHO-SIDCER/ FERCAP Vice Chair)가 함께하고 패널토의로는 이동호 교수(국가임상시험사업단 부단장), 황성규 교수(경북대학교 임상시험센터장), 식약청 임상시험제도과 김성호 과장이 함께 토의자로 진행되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날’ 행사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9일,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날’로 정하여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삼성과 LG 야구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 소속 채태인 선수를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는 위촉패와 꽃다발을 전달한 후 의료원장 김준우 신부의 시구로 경기를 시작하였다. 경기 시간 틈틈이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과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 퀴즈,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이 행사에는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을

포함하여 약 2,700여 명이 참석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였다.

김준우 신부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의료원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교직원들에게 보답하고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아픈 환우들을 위해 더욱 수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병원장 여형태 교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3월 27일 동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13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가정의학과 김성희 교수, 재활의학과 박해운 교수 등 약 40여 명의 봉사단으로 이루어졌다.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여러 임상과의 진료 및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골밀도 측정, 체성분 분석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진료 활동을 펼쳤으며, 동구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노고를 치하하였다.

진료는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 이루어졌으며 진료 전부터 대기인원이 많아 대기실이 북적였다. 다문화가족들은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게 되어 흡족해 했고, 진료를 받은 가족 중 일부는 질환 혹은 의심 소견을 받기도 했다.

의료원장 김준우 신부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료봉사 활동을 계기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많은 의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2010년 4월 9일 신관 7층 강당에서 “대구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루어졌다.

조환길 타대오 주교(교구장 직무대리), 전광진 엘마노 신부(대구대교구 사목기획실장)가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였으며, 서문자 대구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 회장, 백옥희 대구광역시 병원간호사회 회장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축하하러 참석한 전광진 신부는 가톨릭간호사회의 앞으로 나아가 할 길에 대한 기념 특강을 하였고, 조환길 주교는 기념미사를 집전하셨다. 조환길 주교는 ‘가톨릭간호사회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심의 마음으로 환우들을 대하길 바라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기념미사 집전 후 시작된 이날의 행사는 축하, 가톨릭간호사회 발자취 사진쇼 등을 비롯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댄스동아리 NARS팀의 댄스공연, 포항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수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의 노래, 대구파티마병원 간호사들의 중창과 댄스 순으로, 각 소속단체들을 대표하여 출전한 장기자랑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하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의료원장

김준우 신부는 “환우들의 건강과 쾌유를 위해 헌신하는 가톨릭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가톨릭간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삼성라이온즈 배영수·윤성환 선수 소아청소년과 병동 방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4일에 삼성라이온즈 포로야구팀 배영수 선수와 윤성환 선수를 초청하였다.

이날 초청 받은 배영수 선수와 윤성환 선수는 소아청소년과 병동 환아들에게 직접 사인한 사인볼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지우개 및 연필을 전달하였으며, 기념촬영도 함께 했다. 선물을 받은 환아들은 배영수 선수와 윤성환 선수에게 환한 웃음과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감사의 답례를 하였다.

삼성라이온즈에서는 시즌중이라 많이 바쁘지만 어린이날을 앞두고 밖에서 힘차게 뛰어놀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더구나 생일을 맞은 배영수 투수는 ‘생일날 이런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우리나라의 새싹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신나게 뛰어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원장 김준우 신부는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의 방문으로 오랜만에 환아들이 밝게 웃었다’며 ‘올해도 멋진 경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삼성라이온즈는 지난 2월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익적 교류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의 경매 행사 등 지역민들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 개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는 5월 7일 ‘어버이 날’을 맞이해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원장 김준우 신부는 신경과와 내과 병동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또한 간호부에서도 본원에 입원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약 300 여명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김준우 신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본원 전 교직원들은 환우분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1년 365일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전했다.

### 개원 30주년 기념 음식바자회 개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4일 간호부 주관 하



에 병원 신관 로비 옆 광장에서 ‘손끝으로 쓰는 맛있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랑 나눔 음식바자회를 약 1,500여 명의 교직원 및 내원객과 환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 주위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위한 뜻 깊은 행사로 의료원장 김준우 신부, 간호부장 한경혜 수녀의 환영사 및 커팅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졌다.

음식 재료 준비부터 메뉴판 작성까지 교직원들이 직접 준비하면서 교직원 서로간의 친목 도모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는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김준우 신부는 “이런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교직원 및 환우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흐뭇하고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줄 수 있어 더욱 더 기쁘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실로 전달할 예정이며, 몸이 불편하지만 가정 환경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사용할 예정이다.

### 강남베드로병원

#### 대한노인신경외과 학회로부터 최우수 학술상 수상

3월 7일 대한노인신경외과 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본 강남베드로병원(병원

**학술상**  
최우수 학술상

최 목: 치매증상에서 Anti-SCYE1 Antibody의 효과  
소 목: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연구소, 경남베드로병원 신경과, (주)세인트앤제이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융합연구소, (주)셀트리온

귀하는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본 협회를 대표하여 위 학술상을 드립니다.

2010년 3월 7일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 임영진



장 강준기)의 논문 “치매증상에서 Anti-SCYE1 Antibody(치매예방제)의 효과”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받았으며, 이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증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논문이다. 또한 본원 명예 원장이신 강준기 교수께서 대한노인신경외과 학회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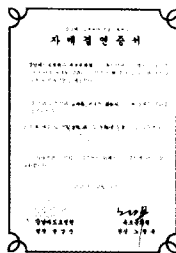
**대한노인신경외과 학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해마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노인질병도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병원에서는 노인신경외과 학회의 노인 병연구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 1천 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윤강준 베드로 원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속초문화원과 자매결연체결 및 명예 이사 위촉**

강남베드로병원은 척추전문병원으로서



**위촉장**

강남베드로병원  
병원장 윤강준  
관리를 충수결핵환 영재이사로  
부촉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속초문화원장 노광



전 국민의 척추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월 5일 속초문화원의 요청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속초문화원으로 부터 본원의 윤강준 원장께서 명예이사로 위촉되었다.

**논공가톨릭병원**

**장례식장 축복식**



3월 16일 조환길 타대오 주교의 주례로 논공가톨릭병원(병원장 신영규 신부) 장례식장 축복식이 열렸다. 1층은 대 특실과 사무실, 주방, 안치실을, 2층은 특실 3개, 일반실 1개를 갖추고 있으며 초현대식 시설과 대형의 무료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을 하게하며,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복지 기금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소식지 'We' 창간호 발간**

4월 12일 통합소식지 'We'가 발간되었



다. 논공가톨릭병원 외 시메온의 집, 가톨릭치매센터, 마리의 집이 함께하여 새롭게 창간되는 만큼 각 기관의 단합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소식지는 한 해에 4번의 발간을 거쳐 여러 기관과 지역 주민들에게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지정 병원**



논공가톨릭병원은 2월 치매 검진 사업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3월 확대 실시하고 있다. 치매 환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진행을 늦추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줄여 주자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검진은 60세 이상의 어르신 및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파티마병원**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술 선정 “초기 위암 위내시경 시술”**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술로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장중태 수녀)의 “초기 위암 위내시경 시술”이 선정 되었다. 이



번 평가는 외과학회, 내과학회, 치과학회 등 11개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치료 성공률 ▲생존률 ▲수술 중 사망률 ▲외국인 환자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의료기술로 선정되었다.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기관 공로상 수상



대구파티마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3월 20일 오후 1시 서울에서 개최한 제 3회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정기총회에 참가하였다. 금번 정기총회에서 대구파티마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의 숭고한 뜻을 전파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미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 치매 조기검진 기관지정

대구파티마병원은 3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와 치매 조기검진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차 선별 후 치매증상이 있을 경우 본원에서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치료와

### 동구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 협약식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된다.

### 의료진 연수교육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진 연수교육이 3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교육은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21세기 의료기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강이 있었다.

### 제7회 QA경진대회



제7회 QA경진대회가 3월 3일 오후 5시부터 본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총체적 질 관리 활동을 통하여 병원의 전

부서가 의료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전 직원이 QA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를 한층 더 높이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신장내과 외 9개 부서에서 구연발표가 있었으며, 포스터 참가 부서는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직원식당 앞에 전시되어 전 직원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 : 퇴원예고의 확산 및 정착화를 위한 방안(51·52병동)

### 몽골 불강아이막 대표단 방문



3월 31일 몽골 불강아이막 대표단이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하였다. 몽골 불강아이막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경찰청장, 종합병원장 외 분야별 기관장 총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대구파티마병원의 발전된 의학기술과 의료시설에 대해 견학을 하였다. 방문단은 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병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파티마 뇌·신경전문병원, 재활치료실, 신생아실, 종합건강증진센터, 국제진료센터 등을 둘러보았다.

### 모현센터의원

### 환자분들 모시고 산정호수 소풍



날씨가 조금 쌀쌀했지만 그래도 콧김(?)을 쐬어 한다는 환자분들을 모시고 산정

호수로 번개 소풍을 다녀왔다. 호수를 반 바퀴 걷고 동동주와 해물전, 도토리묵을먹고 돌아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봄을 미리 당겨 맛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어르신들의 노래 연습**



금요일이면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 연습을 한다. 그 동안의 같고 닮은 실력을 가지고 순회공연(?)을 하셨다. 바로 3층 호스피스 병동으로 올라가셔서 환자들에게 노래 선물을 해 주셨다. 어르신들이 환자분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와 기도, 정말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눠 줄 수 없을 만큼이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나눔에 감사드린다.

**호스피스 교육(간호사 및 일반인)**



아무리 잘 한다고 칭찬을 들어도 스스로를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최고의 호스피스를 꿈꾸는 간호사들의 공부시간이다. 진료원장 정극규 선생님의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사별가족을 담당하는 안영란 선생님의 강의, 의료인의 소진을 다루는 호스피스 연구모임 참석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최고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다.

유난히 호스피스 교육이 많은 3월 한 달이었다. 동두천 성당 4주, 관산동 성당 5주, 영등포구 주민을 위한 10주 호스피스 교육, 갈말 성당과 포천 성당 강론, 마석 성당 사순절 특강 등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나누었다.

4월 22일부터는 종로구에서 호스피스 10주 교육을 시작하였다. 또한 천주교 의정부교구 레지아 단원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수원 평화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위한 양성 교육, 일산노인복지관들의 어르신을 위한 '좋은 죽음'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별가족 모임**

사별가족 모임 샵터 13기가 시작되었다. 사별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삶의 등불을 찾지 못하신 분부터 한 달 전 사별을 경험한 가족 등 11 가족이 모임을 시작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10주간의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포천 성당에서 후원금 모집**

포천 성당 배중호 신부님의 도움으로 21일 포천 성당 미사 중에 후원금 모집을 부탁하는 강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신부님과 정성들을 모아 주신 포천 성당 신자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다. 님들로 인해 행복하다.

**환자 프로그램**



바쁘다, 바빠!!! 환자분들의 프로그램 시간이다. 코튼 돌 만들기, 환자분들과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음악 시간, 시골장 구경 가기, 허브 아일랜드 봄 나들이, 아로마 마사지 시간, 꽃꽂이 등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쁜 시간들이다. 늘 좋은 프로그램으로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임평화 공연단의 공연**



대한적십자사 광주지부 햇빛봉사회 소속의 임평화 공연단이 작년에 이어 또 모현을 방문하였다. 95세 되신 민갑순 어르신의 답가 또한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성기롤로병원**

**응급뇌질환센터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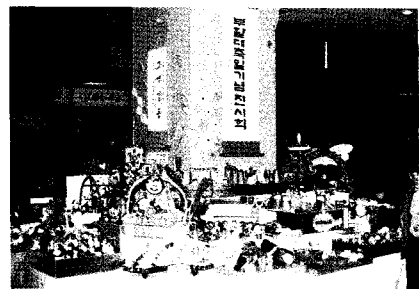
성기롤로병원(병원장 노성만)이 전남 동부권 최초로 응급뇌질환센터(소장 신경

과 한형석 과장)를 개설하였다. 4월 5일 13시 30분 병원 3층 응급뇌질환센터 앞에서 우진수 신부 주례로 축복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한 이 응급뇌질환센터(뇌졸중 집중치료실)는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으로 팀을 구성, 급성기간 동안 뇌졸중 환자의 초기 재활과 합병증 조기 진단 및 예방을 통하여 사망률 또는 타인의 의존율을 감소시키고 독립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소하게 되었다.

신경과 전문의 3명, 신경외과 전문의 3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뇌졸중 집중치료실 간호사 15명, 재활치료사 등 특화된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된 응급뇌질환센터는 인공호흡기, 심전도, 산소포화도, 체온, 혈압에 대한 비침습성 자동감시체계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의료진에 의한 신경학적 척도 측정 및 조기 재활치료 등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진들은 상호협조 및 존경과 신뢰 안에서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이번 개소한 성가롤로병원의 응급뇌질환센터가 앞으로 전남 동부권과 인접 영남지역권의 뇌졸중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 부활대축일 기념 사행시 및 부활달갈 콘테스트



성가롤로병원에서는 예수부활대축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시키고자 사행시 공모전과 부활달갈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기획팀의 주도 아래 '예수부활'과 '고객감동'을 제목으로 내건 사행시 공모전에는 총 273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대상(조희근·영상의학팀), 최우수상(김종찬·영상의학팀), 우수상(강경이·보험심사팀), 그리고 아차상 10명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4월 1일 병원 1층 로비, 예수부활대축일 기념전시회를 개막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 및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사행시 우수작 세 편은 붓글씨 족자로 만들어져 4월 말까지 1층 로비에 전시되고 있다.

사행시 시상에 이어서 원목팀 주최로 열린 제2회 부활달갈 콘테스트의 입상팀 발표와 시상식이 있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부활달갈 콘테스트에는 모두 37개 팀이 참여해 더욱 깊어진 영성과 튼튼한 팀웍으로 다재다능한 솜씨들을 선보였다. 상금 40만원이 걸린 영예의 대상은 환경살리기와 예수성심의 영성을 결합하여 제작한 영상의학팀에 돌아갔고, 수술실(최우수상), 외래2팀(우수상), 약제팀(우수상), 5A병동(장려상), 사회사업팀과 완화의료팀(재치상), 진단검사의학팀(아이디어상), 7B병동(아차상)도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전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킨 이번 부활대축일 기념 사행시 공모전과 부활달갈 콘테스트는 부활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전 직원들의 팀웍과 애사심, 참신한 아이디어의 개발과 창의성을 높이는 좋은 활력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 세례식 -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3월 19일 오후 5시 30분, 성가롤로병원 2층 성당에서 안승희(안젤라 7A병동)



수간호사를 비롯한 직원 10명의 세례식(우진수 이나시오 신부 집전)이 거행되었다.

대부모와 가족, 친지, 동료들이 함께한 가운데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10명의 영세자들은 그간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점심시간을 쪼개어 8개월 동안 교리(지도: 노미용 바실리오 원목팀장수녀)를 배우고 성서쓰기를 실천하면서 열심히 세례를 준비해 왔다. 세례식 후에는 그 동안 성실하게 교리반에 참석하며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온 조미란 레지나 간호사가 성실상을 받았다.

### 세이브더칠드런/ 성가롤로병원 아동 청소년 소액의료비 사업 협약 체결

성가롤로병원은 국제 아동구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서 소외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성가롤로병원은 이번 사업으로 전남 동부권지역의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2회 지원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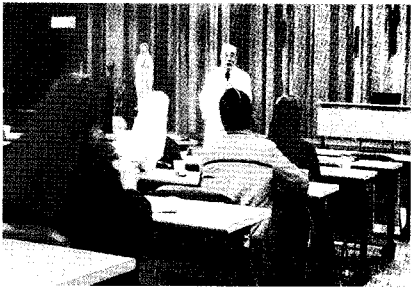
특히, 성가롤로병원이 자리한 전남 동부권은 농어촌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조손가정 및 한 부모 가정,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사업팀은 아동·청소년들의 예방 및 조기치료,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의

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바오로복지병원

#### 직원교육



성바오로복지병원(병원장 김경순 수녀)은 봄을 맞아 3월 27일 전 직원 교육이 있었다. 가톨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소속감과 행복을 주제로 강의 듣고 다과를 나누며 직원으로서의 다짐과 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개원 11주년 기념미사 및 행사



개원 11주년을 맞아 4월 26일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님과 함께 개원 기념미사를 드리며 10년 동안 한결 같이 성바오로복지병원을 위해 애써주신 봉사자분들과 특별 은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학생 사물놀이팀, 에버그린밴드의 축하공연을 통해 봉사자분들과 은인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바오로복지병원의 발전을 위해 격려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성이시들복지의원

#### 직원 산행



4월 10일 토요일, 성이시들복지의원(원장 김경순 수녀) 직원들이 함께 모여 제주도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이달봉과 새별 오름에 올랐다. 신선한 풀 내음과 상큼한 바람...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듯 평온하면서도 힘찬 생명의 모습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경관에 저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제주도에는 360여개의 오름이 있는데, 한 달에 1~2개씩 오름을 올라도 다 올라가 보려면 몇 년이란 시간이 걸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면서 자연과 함께 숨 쉬며 느끼는 일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큰 은총인 것 같다.

#### 고사리 꺾기 행사

4월 15일 목요일에는 성이시들복지의원의 연중행사인 '고사리 꺾기'를 하였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사용할 고사리를 손수 꺾으며, 이 고사리 반찬을 맛있게 잡수실 호스피스병동 환자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노라면 힘들었던 생각은 잠시뿐, 보람 있는 즐거운 하루였다.

#### 직원 자체교육



3월 25일 목요일에는 직원 자체교육 프로그램인 <내안에 행복을 찾는 것>이라는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유재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 요셉의원

#### 제7기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요셉의원(원장 이문주 신부) 제7기 자원봉사자 교육이 3월 19일 오후 2시부터 우리 병원 3층 경당에서 실시되었다. 첫 시간에는 윤석인 서울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소장이 '봉사자의 영성과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봉사에 임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특히 봉사자는 ①능력에 맞는 일감과 역할을 맡는다. ②가족이나 주위의 협조와 동의를 구한다. ③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④항상 웃으며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⑤약속을 지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⑥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한다 ⑦본인이 선택한 자원봉사활동에 책임을 진다. ⑧개인적인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봉사자가 꼭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신완식 의무원장이 '알쏭달쏭한 의학상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학상식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었다. 이 날 교육에는 요셉의원 봉사자 54명이 참석해서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봉사자교육을 마쳤다.

**신완식 의무원장 '올해의 의사상' 받아**  
신완식 요셉의원 의무원장이 3월 13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갑식 동문회장으로부터 '올해의 의사상'을 받았다.

우리병원에서는 4월 1일 미사를 마치고 이문주 원장신부가 신완식 의무원장에게 축하 화분을 전하고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신 원장은 "이 수상은 제가 잘 해서라기보다 봉사자, 후원자 여러분이 받으실 것을 제가 대신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답례를 했다.

### 고 선우경식 원장 2주기 추모 미사



4월 17일, 고 선우경식 원장 2주기일 하루 전 날, 요셉의원에서는 유가족대표와 직원, 상근 봉사자 등 38명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이문주 신부 집전으로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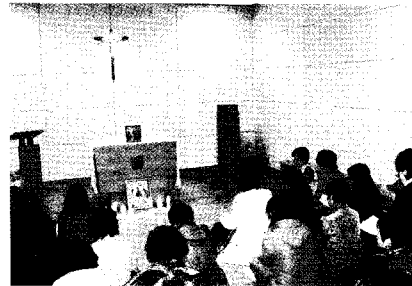
이날 미사에서 이문주 원장신부는 강론을 통해 고인을 기리며 요셉의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를 생각하고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이어 "김수환 추기경님과 선우경식 원장님이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 선우경식 원장에게 보고 형식으로 쓰여진 추모사에서는 "처음 원장님이 저희 곁을 떠나셨을 때 저희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하느님이 저희를 지

켜주셔서 요셉의원은 새 원장님을 모시고 원장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고 있고 후원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원장님 생존 시에 '후원자가 3,000명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염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희 걱정은 조금 덜어드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성에는 차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품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렸다.

### 전·진·상의원

#### 봉사자 피정



새해를 시작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봉사자들의 피정이 있었다. 다양한 종교의 봉사자들이 있어 TAIZE 공동체의 피정과 영성 교육과 나눔이 있었는데 타종교와 함께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

#### 봄의 향연



4월 19일 거동이 어려운 완화의료센터 환자분들을 위하여 La musique 현악4중주단의 방문 공연이 있었다. 터키 행진곡과 봄의 소리 왈츠, 뽀꾸기 왈츠 등 귀에 익은 음악을 경쾌하게 연주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환자분들이 희망의 소리를 듣게 해주었다.

### 후원회 미사



매달 3째주 월요일에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된다. 특히 매해 5월에는 야외에서 봉헌되는데 이번 해에는 5월 24일 오후2시에 전·진·상 복지관 마당에서 봉헌된다.

### 창원파티마병원

#### 중증응급질환특성화센터 지정



창원파티마병원(병원장 최수자 수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외상·응급뇌혈관특성화센터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전국53개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질환특성화후보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중 인력·장비·진료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특성화센터를 최종 선정하였다. 창원파티마병원은 응급뇌혈관·중증외상특성화센터로 선



정되었으며, 응급환자의 사망과 후유장애의 최소화를 위해 1년 365일 24시간 해당질환 전문의가 응급환자 도착 시 진료 및 치료에 즉시 투입된다.

**건강증진센터 새 단장**



창원파티마병원 건강증진센터가 내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건강검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위·대장 내시경 장비를 비롯한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고객동선의 최소화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직원 교육 실시**

전 직원 교육이 4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1차에 걸쳐 부곡 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핵심가치 공유과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 직원 교육은 핵심가치 속에 내재된 책임, 연민, 존중, 현대의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와 주도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창원파티마병원은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티 긴급 구호 지원**



지난 3월 5일 아이티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병원측과 직원들이 모은 구호성금 1,000만원을 한국 카리타스에 전달했다. 이번 구호성금은 아이티 난민을 위한 의료지원, 주거지원, 식량지원 등 긴급 구호 및 재건에 사용되었다.

**이주 여성 임신·출산 교육**



4월 20일 오후 2시 경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 여성을 위한 임신·출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좌는 결혼 후 낯선 환경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산모를 돕기 위해 개최했으며, 임신 전·후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과 대처법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천주의성요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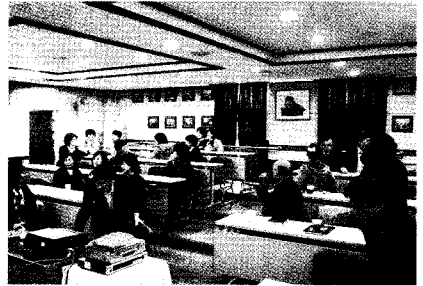
**연구의 날**



3월 8일은 천주의 성 요한 축일이자 천주의성요한병원(병원장 김주식)에서 지정한 연구의 날로 올해는 5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총회기간 중이어서 한국을 방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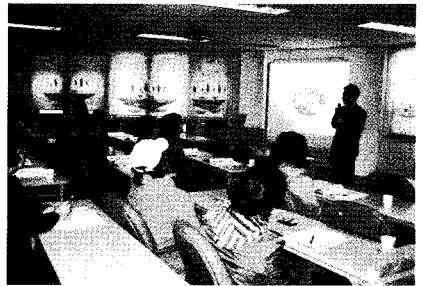
신 총장님이 직접 그 노고를 치하해 주셨다.

**요한의 길 피정**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여년 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성 요한의 길은 성인의 생애와 정신을 되새기며 자신을 성찰하고, 수도회 사명인 환대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으로서 매월 첫 수요일 그룹별 문헌공부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4월은 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프로그램 중 수사님의 성소체험은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였고,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해 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4일간 진행된 교육에서는 호스피스의 철학과 윤리, 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대상자 관리, 가족 돌봄, 삶과 죽음의 이해 등이 다루어졌다. 수강자들은 호스피스를 이해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 청주성모병원

### 개원 12주년 기념식



청주성모병원(병원장 이현로 신부)은 3월 25일 병원 강당에서 개원 12주년 행사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현로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청주성모병원이 12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손익을 떠난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직원들의 아낌없는 병원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청주성모병원을 아끼고 사랑해준 지역사회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또 “대형병원의 개원에 따른 병원공급 확대 등 병원 경영 여건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진료 분야의 전문화 및 특화, 쾌적한 의료 환경 조성, 전문질 환센터 육성,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 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의료시스템 구축, 친절한 생활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친화 의료기관으로 현재의 난관을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자 40여 명에게 순금메달을 전달하였다.

### 아이티 국민돕기 구호금 전달

청주성모병원 직원 700여 명은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티 국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 949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현로 병원장은 “직원들의 성금이 고통 중에 있는 아이티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998년 개원한 청주성모병원은 병원 정상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잊지 않는다는 병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청주성모병원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려운 나라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하거나 출연한 액수는 무려 1억 여 원을 웃돌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한 북한의료지원사업 1천 8백 여 만원, 2001년부터 시작한 불우이웃돕기 1천 5백 여 만원, 2003년 태풍 매미 수재민을 돕기로 시작된 수재의연금 1천 여 만원, 2003년부터 시작한 방글라데시와 우간다 돕기 성금 2천 1백 여 만원, 2006년부터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2천 8백 여 만원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청주성모병원 직원들은 기부의 생활화를 위해 2005년부터 월급 수령액 중 1천원 이하의 낙전을 매달 모아 그동안 1천 6백 여 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왔다. 또한 청주성모병원은 기회가 되는 대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개안수술, 다문화가정의 여성질환 검진과 진료 등 직접적인 진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지역사회에 고취시켜 왔다.

## 포항성모병원

### 필리핀 의료봉사

포항성모병원(병원장 손경옥 수녀)이 병



원이념실천 및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나흘간 필리핀 마닐라로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필리핀 마닐라 외곽 빈민지역에서 약 500여 명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 현지인들은 대부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으면서도 전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어른·아이 구분 없이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가운데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번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포항성모병원은 해마다 찾아가는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멀리 동남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고 있다.

### 응급뇌혈관 및 중증외상 특성화센터



포항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응급환자 전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포항, 경주, 영덕, 울

진, 울릉군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전담하는 '응급뇌혈관 특성화센터' 및 '중증외상 특성화센터'로 지정되었다.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는 환자 발생 시 해당지역 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수술과 치료 등 응급진료를 실시하여 사망환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번 특성화센터 선정은 24시간 상시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작년 한 해 동안 시범운영 및 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최적의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지정하였다.

특히 포항성모병원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당시 전국의 28개 응급뇌혈관 특성화 후보센터 중 유일하게 뛰어난 진료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해 지역의료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어르신 먼저진료 실시**

지난 3월 2일부터 "어르신 먼저진료" 서비스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업그레이드 2010! 참 좋은 병원"이라는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75세 이상(1935년 12월 31일생까지) 고령의 어르신들이 외래진료를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으며, 혼자 오신 어르신의 경우 수납부터 진료 후 약 처방까지 병원 직원이 동행하며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항성모병원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덕·울진 지역의 거주자가 내원할 때 진료접수 대기번호표를 뽑지 않고 바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핵심역량 강화' 관리자 교육 실시**



포항성모병원은 지난 3월 중간관리자 120명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Leadership Innovation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간관리자들의 대외 환경변화와 경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리자로서 코칭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간관리자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아울러 교육 방식도 단순 강의 방식이 아닌 참여식, 게임식으로 구성하여 중간관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곡자애병원 ·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사랑으로 봉사할 의료인을 찾습니다.**

꽃동네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길가에서 말없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어 가는 가장 가난한 분들을 모셔다 치료해 드리는 자선병원입니다. 의료인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을 돌보아 주실 따스한 손길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 하느님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싶은 의료인

- 1) 간호사, 간호조무사
  - 간호과 근무의 경우, 파트타임 근무나 당직 근무만 하는 간호사도 환영합니다.
- 2) 정년을 하셨거나, 정년을 앞두고신 임상各科 전문의(일반의도 환영)
- 3) 병원과 관련된 의료 전문직 종사자

연 락 처 : 인곡자애병원 043-879-0301 /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031-589-0302  
 신상현수사 011-463-9811 / email: ingok55@hanmail.net